

남도장터, 식품산업 전문기관 ‘K-푸드산업진흥원’ 탈바꿈

전남지역 농특산물 판매·판로개척

R&D·생산·가공·수출 지원 기능

창업·푸드테크·음식관광 사업도

전남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판로 개척을 지원 해온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식품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유통·판매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식품 연구개발과 생산·가공, 수출 등으로 사업 영역

을 넓혀 전남광주 K-푸드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기존 남도장터의 명칭을 ‘남도K-푸드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 곳곳에 분산된 식품산업 연구개발(R&D) 기반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기존 농특산물 온라인 쇼룸물 운영과 판로 지원에 집중됐던 남도장터의 역할은 식품산업 연구개발부터 생산·가공·유통·수출에 이르는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된다.

새롭게 개편되는 진흥원은 식품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창업·푸드테크 육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지원 등을 수행한다.

공공급식과 지역 먹거리 공급, 전통·향토 음식의 산업·세계화, 음식관광 연계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혔다.

반면 기존 남도장터의 사업에 포함됐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로 지원은 개편된 진흥원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신 농수축산식품을 중심으로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진흥원장은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재단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맡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남도장터 법인의 명칭과 사업 기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재산과 권리·의무, 계약 및 사업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남도장터 법인의 명칭·기능을 변경하는 방식”이라며 “재산·권리·의무·계약·사업·직원 고용 관계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다함께 짹짹 제16회 서구청장배 생활체육 체조대회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서구체육회, 서구체조협회, 청소년부·일반부·장년부 체조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강>

의병부터 5·18까지...‘남도 義정신’ 조명

전남대 연구원-남도의병역사박물관 협약

학술교류·공동연구·교육 프로그램 추진

전남광주 통합 기념 연내 심포지엄 개최

전남대학교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남도의병에서 나주·광주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남도의 ‘정의로운 투쟁의 정신’을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두 기관은 지난 8일 전남대 미래1호관에서 남도의병 연구와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학술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했다. <사진>

이번 협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지



역의 역사를 하나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남도가 지닌 역사적 가치를 학술 연구와 교육·문화 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남도의병 관련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지역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학술·연구 역량을 연계해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첫 공동사업으로는 전남광주 통합을 기념하는 학술심포지엄을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의병에서 나주·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발현된 ‘의(義)’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규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장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두 기관이 통합의 의제를 제시하는 공동연구의 장을 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시, 하반기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이달 말까지 소·염소 487농가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는 11일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북 예천과 인천 강화의 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하반기 백신 일제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항체양성률이 낮았던 농가, 자가접종 농가 등 총 487호다. 소 사육농가는 소규모·전업농 각 229호, 염소 사육농가는 소규모 19호와 전업농 10호다.

소규모와 전업농을 구분하는 사육 규모는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다. 이보다 적게 사육하면 소규모 농가, 이상이면 전업농에 해당한다. 농가당 검사 마릿수는 소규모 5마리, 전업농 10마

리다.

오는 31일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인 소 80%, 염소 60%에 미치지 못한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고, 백신 재접종 후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

야외 바이러스 감염 항체검사에서도 양성률이 확인되면 구제역 감염 의심으로 판단해 이동을 제한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확대 검사 등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4월 추진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모니터링 검사에서는 631농가 6천115마리 가운데 6천1마리가 항체양성으로 확인돼 98.1%의 항체양성률을 보였다.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난해 영암과 무안에서 19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올해 하반기 방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백신 일제접종과 상시소독을 철저히 생활화하는 등 농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2027 올해의 책’ 시민과 함께 고른다

전남도서관, 18일까지 후보도서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은 11일 “2027년 전남광주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후보도서 시민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의 책’ 사업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남도 올해의 책’을 ‘전남광주 올해의 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

추천 분야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문학, 일반 비문학 등 4개 분야다. 특별시민이면 누구나 분야별 2권 이내, 1인 최대 8권까지 추천할 수 있다.

국내 작가가 집필하고 최근 3년 이내 발간한

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은 전남도서관 누리집 ‘올해의 책’ 추천도서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과 독서·문학 관련 기관·단체는 추천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받은 도서는 전남·광주의 도서관, 문학, 독서,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권의 후보도서로 압축된다. 이후 시민 선호도 조사와 도서선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합산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 문학, 일반 비문학 분야별 1권씩 총 4권을 ‘2027년 전남광주 올해의 책’으로 최종 선정한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1 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2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3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CMYK